수상소감

정 진 숙 · 헬레나 수녀
남원의료원 인보호스피스

2004년 5월 항상 집에서 천정만 바라보면서 계절이 왔다 가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 가는지 가늠하지 못하고 거동도 제대로 못하는 재가 환자들과 야외 나눔 행사를 가졌다. 한분 한분마다 정성껏 마련한 음식을 나누어 드리자 이를 맛있게 드시고 오랜만에 자연의 향기를 맡으신 그분들은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사랑에 감사했다. 모처럼의 나들이에 어린이들이 소풍 온 것처럼 즐거워하는 어른신들을 보고 매년 5월과 10월에 재가환자 야외 나눔의 행사를 치를 계획을 하고 있다.

우리는 너, 나 할 것 없이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이다. 병실에서 만나는 그분들을 결코 가벼운 마음으로 만날 수 없다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십자가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봉사자라고 해서 늘 환영받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의 친절함에 큰 부담을 느낀 나머지 거부감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나 그 거부감이 어느 순간부터 작은 기다림, 더 나아가 간절한 기다림으로 변하고 닫혔던 마음과 영혼이 새 봄의 꽃망울처럼 활짝 열리는 것을 볼 때 그 기쁨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 한가지 예를 들면, 지난해 가을이었다.
간암 말기였던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은 매우 냉소적이었다. 믿는 것은 오직 자신 뿐, 결코 하느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어떤 도움도 받기 싫어했던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아 언짢게 툭툭 내뱉는 듯한 이야기를 듣고 한 두 마디씩 거드는 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였다. 그렇게 몇 주가 흐르자 거칠었던 말투도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예의를 지키려고 했으며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듯 했다. 자신의 난폭함 때문에 떠나가 버린 가족들에 대한 증오심을 떨치고 미안한 마음으로 속죄를 하듯이 말이다. 그러던중 마침내 하느님과 신앙에 관한 대화가 오고 갔으며 임종전에 대세를 받으셨고 일주일 후에 하느님께 돌아갔다. 오히려 저의 몸이 힘들어 보인다며 자신이 겪는 고통 속에서도 저희를 걱정해 주고 임종 때에는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던 그분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인간은 사랑할 권리가 있고 사랑 받을 의무도 있다"는 마더 데레사 수녀님의 말씀이 생각난다. 그렇다. 봉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의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하는 것이다.

순간 순간 힘들고 좌절감에 빠질때도 있지만 그 좌절의 순간을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하고 고통받는 한 영혼과 함께 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랑받을 의무가 있는 많은 분들이 사랑의 권리를 행사할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끝으로 당연히 해야할 일을 했을 뿐인데 한국가톨릭 호스피스 협회에서 2002년 10월 기관 우수상과 2004년 10월 박태규 봉사자 개인 공로상과 더불어 2005년 3월 공로상을 주신 한국가톨릭 호스피스협회 화원님들과 김혜자 회장님께 이 자리를 통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남원의료원 가톨릭 인보호스피스 봉사단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손길을 필요로하는 환자들을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정신 안에서 환자 개개인의 인간생명, 인격존중과 삶의 질 향상을 유지 해주는 인간존엄성 회복운동으로 호스피스 봉사, 사랑의 행위 운동을 열심히 실천 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17세기 수녀의 기도

주님, 주님께서는 제가 늙어가고 있고
언젠가는 정말로 늙어 버릴것을
저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저로 하여금 말 많은 늙은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특히 아무때나 무엇에나 한마디 해야 한다고 나서는
치명적인 버릇에 걸리지 않게 하소서.

제가 가진 크나큰 지혜의 창고를 다 이용하지 못하는건
참으로 애석한 일이지만
저도 결국엔 친구가 몇명 남아 있어야 하겠지요.
끝없이 이얘기 저얘기 떠들지 않고
꼴장 요점으로 날아가는 날개를 주소서.

모든사람들의 삶을 바로 잡고자 하는 열망으로 부터
벗어나게 하소서.
저를 사려깊으나 시무룩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남에게 도움을 주되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소서.

내 팔,다리,머리,허리의 고통에 대해서는
아예 입을 막아 주소서.
내 신체의 고통은해마다 늘어나고
그것들에 대해 위로받고 싶은 마음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대한 얘기를 기꺼이 들어줄
은혜야 어찌 바라겠습니까만
적어도 인내심을 갖고 참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제 기억력을 좋게 해주십사고 감히 청할순없사오나.
제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어
제 기억이 다른 사람의 기억과 부딪칠때
혹시나 하는 마음이 조금이나마 들게 하소서.
나도 가끔 틀릴수 있다는 영광된 가르침을 주소서.

적당히 착하게 해주소서. 저는
성인까지 되고 싶지 않습니다만...
어떤 성인들은 더불어 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요...
그렇더라도 심술궂은 늙은이는 그저
마귀의 자랑거리가 될 뿐입니다.

제가 늙이 점점 어두워 지는건 어쩔수 없겠지만
저로 하여금 뜻하지 않은 곳에서 선한 것을 보고
뜻밖의 사람에게서 좋은 재능을 발견하는 능력을 주소서.
그리고 그들에게 그것을 선뜻 말해 줄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을 주소서.
아멘....

[인터넷글 발췌]

호스피스 봉사 체험 수기

임 정 희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호스피스 봉사자

호스피스 활동을 한지가 얼마 되지 않아 체험담을 이야기 하기가 부끄럽습니다. 봉사자 중 나이가 제일 많다는 이유로 제가 선택된 것 같습니다.

1.호스피스 봉사를 하게 된 동기

제 나이 60이 되면서 뒤늦게 철이 들었나 봅니다. (지금은 63세) 앞으로의 삶은 하느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삶이라 생각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나 저나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한번은 꼭 가야하는 길이 있다면 죽음일 것입니다. 이 길에서 벗어난 사람은 한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나만은 이 길에서 먼 것처럼 너무나도 바쁘게 세상을 살아가다가 생각지도 않은 때에 준비 없이 죽음의 문턱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준비할까? 생각 하다가 서점에 들러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안내서] 라는 책을 구입하여 읽었습니다.

마침, 대전주보에 실린 호스피스 교육 광고를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참 생각 끝에 전화로 교육신청을 했지요. 오정동에 있는 사회복지 회관에서 교육을 받는데 그동안 받은 다른 교육보다도 당시의 호스피스 교육에서 처럼 심취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때부터 저와 호스피스는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특별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수료증을 받은 즉시 대전 성모병원 원목실에 전화를 걸어 호스피스 봉사를 희망한다고 하였더니 수녀님께서 내일 와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 호스피스 팀장님이 친절히 안내를 해 주어서 수녀님을 만나 뵈었더니 원목 신부님과 상담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떨어질까 걱정이 되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물어보시더니 고맙게도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좋은 봉사라 생각하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2.호스피스 봉사는 어떤 것인가?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은 100년도 못살면서 1000년을 살 것처럼 욕심을 부려 자신과 이웃을 괴롭힙니다. (여자 평균은 85세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말기통고를 받는 그 순간부터라도 지나간 생을 돌아보고 잘 죽을 수 있도록 자신과 화해하고, 이웃, 가족, 친지들과 화해하며 절대자 하느님과 화해하고 편안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도우며, 생의 마지막 시점까지 함께 동행 하면서, 우리가 잡고 있던 환자의 손을 보다 더 높은 분께로 올려드리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가족들을 위로하며 다시 만날 때 까지 현실에 잘 정착하여 살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3. 호스피스 봉사를 하기 위해서 결심한 점

1) 환자를 방문하기 전과 후에 꼭 기도 한다 (5층 경당, 예수님 뵙고 힘을 얻음).
2) 나 혼자가 아니라 팀에 소속되어 함께 활동 한다 (지금은 호스피스과에 우리나라 1인자 김혜자 수녀님이 계시고, 사회복지사 선생님 1분, 봉사자 2분이 함께 오늘의 말씀 묵상, 기도로 시작).

봉사자는 12명인데 저보다 나이 어린 젊은 분들이지만 저보다 훨씬 먼저 지혜롭게 세상을 살고 계셨습니다.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들과 생활하니 즐겁습니다.

3) 내가 가진 것을 (하느님께서 저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한다. (엄마 같은 인상 - 환자에게 접근하기가 더 좋은 점이 될 수도 있더군요)
4) 정기적으로 시간을 할애하여 삶의 일부분으로 만든다. (1주일 중 하루)
   - 저는 8남매의 맏며느리로 시어머니 모시고 있어 어려운 점도 있음 - 양해 구함
   - 친정어머니 92세, 시어머니 82세, - 그분들을 더 잘 이해하고 더 잘해드릴 수 있음
5) 환자와 함께 하는 오늘 이 시간을 보람 있게 한다.
   - 환자의 아픈 마음을 잘 달래주고 가족의 신체적 부담감을 덜어준다
6) 내 마음과 몸을 건강하게 관리한다.
   - 마음이 지치지 않게 함
   - 기도로 무장
   - 운동, 관절운동, 체조

4. 체험담 -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

우리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6개월 이후에는 이 세상을 떠나실 분들입니다. 가족들은 어떻게 하면 잘 해줄 수 있을까? 고심하며 순간순간을 맞이합니다.

환자 : 윤 ○○ 41세, 여자, 폐암
입원 : 2002. 9. 9일
주소 : 전북 순창 쌍치마을
가족 : 시아버지. 남편 (공무원, 동갑), 딸 2 (중2, 초등 6)
종교 : 순창 쌍치공소에서 영세 받은 지 2년, 본명은 글라라

고향에서 가까운 전주 예수병원으로 입원하려 했는데 본인이 대전 성모병원에 가고 싶다고하여 이곳에 오게 되었다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증상은 처음엔 감기몸살인 줄 알았는데 동네 병원에 다녀도 영 낫지 않아 서울 삼성병원에 갔더니 폐암이라고 진단이 내려 그 곳에서 치료를 받고 좋아져서 집에 와서 약을 복용하면서 지냈는데 다 나은 것으로 알았더니 8개월 만에 다시 재발되어 이곳에서 투병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봉사자들은 병상일지를 기록합니다.

환자들은 대개 처음에는 자신의 병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봉사자라고 해서 늘 환영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친절함에 대한 반응이 커다란 거부감으로 다가올 때 그 환자분께 성가심이 될까봐 어떤 식으로 다가가야 할지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미소를 지으며 환자에게 다가가 더욱 깨끗하고 좋은 환경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상태를 살펴보며 물수건으로 얼굴과 손, 발을 닦고, 시트도 잘 펴서 고쳐드리고 더러우면 깨끗한 것으로 바꿔드리고 머리도 감겨드리고 손톱도 발톱도 깍고, 등, 팔 다리 발 맛사지도 해 드리고, 우리가 말하기 보다 환자가 더 많이 말하게 하고, 사랑하는 딸들 이야기, 남

편과 연애시절 이야기, 좋아하는 성가 부르기, 책도 읽어주고, 기도도 하며 되도록 좋은 마음을 갖도록 노력합니다.

항암주사를 맞고 식은 땀 흘리며 매우 괴로워 할 때도 그냥 말없이 손잡아주고 기도하고 함께 있어 줍니다. 울고 싶을 때는 실컷 울도록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보러 한번 오려면 힘들죠. 집에서 버스타고 정읍까지 50분 걸려 나와서 또 정읍역에 가서 기차타고 서대전역까지 1시간 30분 걸려 와서 또 택시타고 병원에 오는데 일주일에 2번, 어떤 때는 3번을 5개월 동안 다녔습니다. 보기에 안타까웠습니다.

집에 아버지 모시고, 밥하고, 빨래하며, 양봉도 하고, 과일나무도 가꾸고, 직장생활도 하며 병원으로 바쁘게 오가며 사랑과 정성을 다 했습니다.

아내 글라라는 예쁘고, 야무지고, 점잖고, 아이들 잘 키우고, 살림 알뜰히 하며 매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먼 곳이지만 고향에서 친구들과 이웃(교우)들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수시로 와서 위로하는 것을 볼 때 대인관계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죽음을 앞둔 분들께 자신의 죽음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 드리는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점점 지치고 힘이 빠져 일어나지도 걷지도 못하게 되면서 우리는 남을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을 만나보고 대화나눌 수 있도록 남편에게 알렸습니다.

친정식구들, 시아버님과 가족들, 친구 이웃들과 와서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서로 용서를 청하며 화해의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시아버님과 맺힌 것도 풀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호스피스 봉사자들을 만날 수 있는 대전성모병원에 온 것이 참으로 다행이었다고 글라라씨는 말했습니다.

환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의 죽음을 조금씩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날 밤 평소에는 조용하던 글라라씨는 큰소리로 밤새워가며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아마도 하느님께 총 고백을 한 것 같습니다. 다음날 글라라씨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웃으며 "사랑해요 여보."하며 속삭였습니다. 남편도 "당신 참 수고했소. 그리고 당신과의 삶이 참 행복했어요. 먼저 잘 가요.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서 또 만나요." 하며 주고 받는 말이 너무나 드라마틱했습니다.

눈이 펑펑 쏟아지는 1월 20일 금요일 10시 사랑하는 가족들과 원목신부님, 수녀님, 그리고 봉사자들 모두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기도를 받으며 주님의 품안으로 영원히 떠나갔습니다. 너무도 맑은 영혼이었으며 많은 이들의 가슴을 헤집어 놓고 홀연히 떠나버린 글라라씨의 모습이 너무도 생생합니다.

(당시 2인실을 쓰고 있었는데 글라라씨가 너무나 아름답게 임종하는 것을 보고 옆에 있던 환자의 딸이 "엄마, 우리도 성당에 다녀요." 하며 부러워했답니다. 글라라씨는 임종하면서까지 전교를 했습니다.

5.호스피스 봉사를 하면서 느낀점

1) 살아있는 시간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제 죽어간 그 자매가 그렇게도 살고 싶어하던 시간들이니까요)
2) 내가 주는 것보다 그들에게서 받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죽음'이 '삶'이며 아름다울 수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경험케 합니다.
3) 세상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모두

를 존중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줘야지 하는 마음이 생김)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들이니까요.

4) 환자들이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에서도 잘 정리하고 평화스럽게 임종을 맞이하는 것을 보면 저절로 감사기도가 나옵니다.

5) 삶의 순간순간 하느님께 감사할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새벽에 눈을 뜨면 주님 오늘도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도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시고, 경제적으로 부자도 아니고, 가난하지도 않게 해 주시고 봉사할 수 있게 해주심 등등)

끝으로, "인간은 사랑할 권리가 있고 사랑받을 의무가 있다"는 마더 데레사 수녀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랑받을 의무가 있는 많은 이들이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당신

손부터 늙어 버린 아내의 손을 놓고
수술실 문턱에서 떨어지지 않던 걸음
그 아픔 다 내게로 와 대신할 수 있다면

미간에 모인 통증 진통제로 풀리는 밤
나무들 수런거림 아기잎을 낳고 있나
눈물빛 우리 만남은 아직도 겨울인데

꽃무늬 환자복이 어울리지 않는냐며
애써 웃음 지으면서 손을 꼬옥 잡는 아내
실안개 감기는 뜨락 목련꽃 터지려나

[인터넷글 발췌]